

글을 나만의 언어로 재구성하기

말 그대로 글을 읽고 우리가 받아들인 그대로 다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예시를 들어 봅시다.

-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와 달리 3D 합성 영상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을 거쳐야 한다.

- 실물을 촬영하여 얻은 자연 영상(자연 영상의 정의구나, 이 글에서는 실물이라는 단어는 자연 영상으로 다 치환해서 읽어도 되겠다)을 그대로 화면에 표시할 때(머릿속에서 동물의 왕국을 떠올림)와 달리 3D 합성 영상(3D 합성 영상은 이름부터 자연 영상과는 다르게 합성 시킨 영상같은데)을 생성, 출력하기 위해서는 모델링과 렌더링(생성은 모델링 출력은 렌더링이고 글의 전개 방식은 합성 영상을 생성하고 출력하겠구나)을 거쳐야 한다.

제가 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나의 언어로 바꾼 사고 과정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고 끊임없이 나의 언어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도구들을 앞으로 배울 것입니다. 단 그 전에 받아들여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의 언어로 바꿀 때 내가 이해하고 바꾼 내용은 뒤에서 모순이 없는 한 이 글과 문제에서는 항상 참이다.” 우리가 푸는 국어지문에서는 항상 이 명제는 참입니다. 수능 간접연계나 앞에서 말한 기존의 지식(스키마)가 부족하지 않는 한 무조건 참인 명제입니다. 이 글에서도 자연 영상을 보고 동물의 왕국을 떠올리거나 실물과 자연 영상을 동의어로 본 것 모두 이 글에서는 참입니다.

두 번째 전제는 “우리가 읽는 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쓴 글이다.”입니다. 즉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글의 내용을 모델링과 렌더링이 나올 것으로 예측한 것이 그 예입니다. 수능 지문은 가장 잘 쓴 글이기 때문에 지금껏 이 전제를 위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내용을 예측하면서 수능 지문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잘 쓰였는지 배울 것입니다,